2026.10.10 · 전날 독해 보고서

AI가 쉬워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검증입니다

짧게 답하면: 어제 글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작업을 만드는 능력보다, 무엇을 믿고 누가 검토할지를 정하는 능력의 가치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경제학 연구의 미래, 음성 코딩의 실제 과정, 세금 개혁의 설계가 이 질문에서 만납니다.

> 피드 수집 항목: **325개**
> 그중 전날 게시 항목: **9개**
> 관심 관련 고유 글 전문 독해: **6편**
> 분석 대상: **6편 / 4개 주제**
> 피드 성공 16곳 · 접근 실패 3곳

대상 기간은 10월 9일 00:00~23:59 KST입니다. 외국 사이트의 10월 8일 글도 한국 시각으로 9일이면 포함했습니다. 325개는 피드가 반환한 과거 글까지 포함한 수이며, 하루 새 글 수가 아닙니다. 오늘 오전 7:49 KST에 각 피드를 한 번씩 읽었습니다.

어제 시험판에서 이미 읽은 세금 글 1편은 다시 분석합니다. 시험판에서 분석하지 않았고 이번 전날 범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과거 분석을 분량 확보용으로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전날의 신약학·역사적 예수·마르크스 경제학·일본 만화 관련 새 분석은 없습니다.

이 보고서의 [확인된 데이터]는 우선 원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원문에 실린 전망, 실험 수치, 신학적 해석이 모두 독립 검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한계는 각 절에 적었습니다.

01 · 경제학 연구 / AI

답을 빨리 만드는 것보다 새 증거를 얻는 것이 비싸집니다

[확인된 데이터] Marginal Revolution은 Ingar Haaland의 전망을 인용합니다. 현장 실험, 기업과의 협력, 행정자료, 역사 문서의 디지털화가 더 중요해질 수 있고, 공개 자료를 내려받아 분석하는 유형의 연구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Cowen은 이 전망에 동의한다고 적습니다. 경제학과 AI에 관한 전망

[제 판단] 핵심은 경제학자가 사라진다는 예언이 아니라 **연구의 병목이 이동한다**는 가설입니다. 문헌 정리와 코드 작성 비용이 낮아지면, 기존 자료에서 결과 하나 더 뽑는 일보다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고 타당한 질문을 만드는 일이 상대적으로 귀해집니다. 경제사에서는 아직 읽히지 않은 장부·신문·문서가 새로운 관찰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가진 기관과 연구자의 우위가 더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델은 쉽게 구해도 기업 내부 자료나 행정자료 접근권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AI가 연구를 민주화한다"는 주장과 "자료 독점이 강화된다"는 주장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행정기관이 직접 질문을 해결하면 일부 연구의 학술출판 수요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빨리 답을 만드는 것과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으로 결과를 점검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외부 연구자의 반론과 재현 가능성이 빠지면 효율은 높아져도 신뢰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확인] 이는 미래 전망이지 관측된 연구시장 변화의 계량 결과가 아닙니다. 특히 "수학은 사실상 OpenAI에 위임됐다"는 시작 문구는 필자의 전제이며, 수학 전체의 대체가 확인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정자료 이용과 박사과정 학생의 불리함도 검증된 일반 법칙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읽을 질문: 새 증거를 얻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어떤 사람은 접근하지 못합니까? 님이 관심 있는 경제사와 마르크스 경제학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음성으로 만들었지만, 키보드 검토로 완성했습니다

[확인된 데이터] Simon Willison은 요리하면서 음성 대화로 자신의 블로그에 뉴스레터 보관 기능을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약 30분의 음성 작업 뒤, 코드를 검토하고 가져오기 방식을 수정하는 데 추가로 약 30분의 타이핑 작업을 했습니다. 음성으로 만든 블로그 기능

[제 판단] 제목만 읽으면 "말만 하면 완성"으로 보이지만, 전문을 읽으면 두 단계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설명하며 초안을 만드는 단계와, 권한·배포·데이터 가져오기 방식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필자는 상세 오류나 예제를 전달할 때 여전히 타이핑이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데모의 성공을 모든 업무의 대체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필자가 작업 난이도를 미리 알고 있었고, 미리보기와 코드 검토를 통해 틀린 선택을 알아챘다는 점입니다. 이 사례의 성공 조건에는 숙련된 검토자가 들어 있습니다. 초보 사용자에게 같은 도구를 주면 같은 품질이 나온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확인된 데이터] Daniel Lemire는 실제 사용 때까지 모듈 로딩을 미루는 Python 실험을 소개합니다. 간단한 버전 출력과 가벼운 계산은 크게 빨라졌지만, 많은 모듈을 실제로 쓰는 경로의 개선은 작았습니다. 오류도 시작 시점이 아니라 나중의 첫 사용 시점에 나타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지연 로딩 실험

[제 판단] 두 글의 공통점은 "빠르다"의 측정 경계를 묻는 것입니다. 초안 생성까지와 안전한 배포까지는 다르고, 시작 시간과 전체 작업 시간도 다릅니다. 지연 로딩은 일을 없앤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AI 평가에서도 생성·검토·재시도·실패 발견까지 포함해야 실제 비용이 드러납니다.

[미확인] Willison의 개발 사례를 직접 재현하지 않았고, 사용 모델의 제품 기능을 공식 문서로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Lemire의 특정 Python 버전·하드웨어·실험 결과도 독립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같은 속도 개선을 얻는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Substack에 관한 언급은 원문에 있지만 해당 서비스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증세의 크기보다 서로 맞물리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확인된 데이터] Conversable Economist는 Kimberly Clausing과 Natasha Sarin의 세금 개혁안을 소개합니다. 새 부유세를 만드는 방식보다 법인세·세무행정·소득세·자본소득 과세와 도박·탄소 관련 세금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미국 재정적자에 대한 세금 쪽 의제

[제 판단] 중요한 대목은 법인세율 수치보다 **투자비 즉시 비용처리와 이자 공제의 조합**입니다. 원문은 투자비를 즉시 전액 비용으로 인정한다면 이자 공제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둘을 함께 허용하면 부채로 조달한 투자에 추가 보조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같은 "법인세를 올린다"는 말도 세율·과세표준·투자 공제·부채 처리에 따라 실효 부담과 투자 유인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업 실적을 볼 때 명목 세율 변화만으로 수익성 영향을 추정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국제 과세를 함께 바꾸지 않으면 이익의 해외 이전으로 세수 효과가 줄 수 있다는 문제도 원문에 들어 있습니다.

세무행정 강화 역시 세율 변화와 다릅니다. 이미 존재하는 세금을 더 정확히 걷는 것과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은 정당성 논쟁과 집행 비용이 다릅니다. 탄소세·도박세는 세수를 늘리면서 행동을 줄이려 하므로, 정책이 잘 작동할수록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세금 쪽 해결책을 골라 소개합니다. 지출 감축 가능성이나 경제성장 효과까지 균형 있게 검토한 완결된 재정 분석은 아닙니다. 반대편의 논증을 빈자리에 상상으로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미확인] 원문에서 인용한 재정·부채 수치, 세수 전망, 연구자의 제안 원문을 독립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책 제안이지 시행된 세법이 아닙니다. 시장이나 미국 세금 신고에 바로 적용할 정보로 보지 마십시오. 결론을 바꾸는 자료는 공식 세수 추계, 행동 변화와 회피를 반영한 분석, 지출 측 대안입니다.

성장과 구원을 너무 쉽게 같은 것으로 만들지 않기

[확인된 데이터] Experimental Theology는 노리치의 줄리안의 수난 해석을 설명합니다. "삼위 전체가 일하지만 아들만 고난받는다"는 문구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아들과 분노하는 아버지 사이의 갈등으로 그리는 이해를 비판합니다. 줄리안 23장 읽기

[제 판단] 이 글의 초점은 모든 형벌대속론을 한 번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사랑이 서로 충돌하는 그림을 경계하는 데 있습니다. "삼위 전체의 공동 행동"과 "아들의 고난"을 구별하는 것이 논증의 핵심입니다. "기쁘게 주는 이"라는 표현도 고통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주는 기쁨으로 해석됩니다.

[확인된 데이터] Marginal Revolution의 다른 글은 독자가 보낸 이메일을 싣습니다. 독자는 『Stubborn Attachments』의 장기 성장과 미래 세대에 관한 생각을 유대교·가톨릭·이슬람의 이미지에 빗댑니다. 글 자체는 해당 종교의 교리 연구나 Cowen의 답변이 아닙니다. 종교적 비유를 담은 독자 이메일

[제 판단] 두 글을 함께 읽으면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해 지금 비용을 감수한다"는 주제가 보입니다. 하지만 종교적 구원과 경제성장의 장기 복리 효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장의 총량이 늘어도 누가 희생하고 누가 과실을 얻는지의 문제가 남습니다. 미래 세대를 배려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약자에게 무제한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메일의 종교별 분류는 자유로운 독후감으로 읽는 편이 맞습니다. 예컨대 신약이 철학 논쟁을 정리한다거나 특정 종교가 성장의 비유와 닮았다는 설명을 학술적 특징으로 일반화하면 종교 내부의 차이를 지우게 됩니다.

[미확인] 줄리안 원전의 해당 판본과 전체 문맥, 『Stubborn Attachments』 전권 및 이메일의 종교학적 설명을 독립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신학 글은 역사적 예수 연구가 아니라 기독교 내부의 신학적 성찰입니다.

꼭 읽을 글 / 수집 한계

오늘은 이 순서로 읽으십시오

1. AI 이후 경제학 연구의 미래
짧지만 경제사·실험·자료 접근권의 가치를 함께 생각하게 합니다. 전망과 관측을 구별해 읽으십시오.

2. 음성 코딩의 실제 완성 과정
데모보다 검토 단계에 주목하십시오. 앞선 예측을 실제 작업 경험과 대조하기 좋습니다.

3. 줄리안의 삼위일체적 십자가 해석
신학의 논점을 경제·기술의 비유로 쉽게 환원하지 않게 해 줍니다.

경제 정책을 먼저 읽으려면 세금 개혁의 설계를 1순위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 이번 범위에서 제외한 3개 항목
> TCJ의 주간 링크 모음: 일본 만화와 직접 연결된 심층 글이 아님.
> MR의 링크 모음: 본문 분석에 필요한 논증이 부족함.
> MR의 감성 분석 발췌: 평가 절차·원자료가 없어 이번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

19개 피드 중 Psephizo·EconLog·Gelman은 HTTP 403으로 이번 접근에 실패했습니다. 실패는 사이트가 중단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공한 16개 피드에서 325개 항목을 받았고, 그중 전날 게시 시각으로 확인되는 항목은 9개입니다. 피드가 보여 주지 않는 글까지 포함한 사이트 전체 발행량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Marginal Revolution은 조건부 출처로 사용했습니다. 피드의 본문은 읽었지만 직접 기사 페이지와의 전문 일치 비교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요청 간격 600초를 지키기 위해 같은 사이트를 곧바로 다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Gelman도 이전 요청과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었고 오류 뒤 재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새 관련 글이 적습니다. 20~30편이라는 과거 읽기량에 맞춰 무관한 글이나 오래된 글을 넣지 않았습니다. 신학·경제학·AI의 자료 유형과 확실성도 서로 같지 않음을 유지했습니다.